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 마음의 이정표 ”	“ 연중 제 22 주일 ”	2009년 8월 30일
복음 묵상:	[마르 7,1-8.14-15.21-23]	[신명 4,1-2.6-8]	[야고 1,17-18.21 나-22.27]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는다고 따집니다. 예수님은 형식만을 따지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서슴없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여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판은 독설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형식보다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간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하느님의 제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사람보다는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했던 건 아닌지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더럽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입니다. 그 중 많은 경우 탐욕, 악의, 시기, 시기, 중상, 어리석음에 빠져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곧 실천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성체조배를 오래하거나,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는 모습들은 바리사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원 조성진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알림:
KAMSA 제 20 회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금난세 지휘자)

- 8월 29 일(토) 오후 8 시
- 401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Herbst Theatre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 9월 20 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성가 파트별 연습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소프라노는 성가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성령대회 사진들:



+ 복음 [마르 7,1-8.14-15.21-23]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 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냇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무어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1분 명상

♡ 협력 ♡

-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중에서 -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똑같은 신념으로 협력을 하려들 것이며, 신념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와 함께 일하든지 대충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협조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든 가장 낮은 의미에서든 생을 같이하는 것을 뜻한다.

* 협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은 최고의 인격 훈련이기도 합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래야 사람 앞에도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